이케바나(꽃꽂이) 전시회

시작의 꽃

はじまりの花

2026년 11월 22일–23일 · 가시하라 나비 플라자 2층 · 이케바나 덴류 가요카이

각 작품 옆 패널에는 작가의 제작 의도가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 내용을 한국어로 간추린 것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リュウ
류
고요함 속에 깃든 강인함

류는 일본의 '무도의 마음'을 체현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고요함 속에 깃든 강인함을 이케바나로 표현했습니다. 켄의 '동(動)'에 대비되는 류의 '정(靜)'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는 같은 석화버들을 쓰고, 꽃을 달리하여 두 사람의 개성을 대비시켰습니다. 흰 도복은 흰 백합과 리시안셔스로, 붉은 머리띠는 붉은 히페리쿰으로 나타냈습니다. 내면에 간직한 강한 투지를 느껴 주시면 좋겠습니다.

春麗
춘리
늠름하게 피어나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정해진 모양은 없습니다. 부드러움도 강인함도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춘리는 굳은 의지를 지니고 늠름하게 살아가는 여성입니다. 강인함 속에 감춰진 부드러움과 다정함, 기품, 그리고 춤추는 듯한 회전 기술이 그려 내는 경쾌한 움직임과 여운을 이케바나로 표현했습니다. 누구나 자기답게, 늠름하게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ケン
켄
정열의 불꽃

켄을 모티프로, 그의 대명사라 할 불꽃을 두른 '승룡권'과 밝고 정열적인 인물상을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불꽃의 격렬함과 내면의 정열은 글로리오사로, 금발의 모습은 온시디움을 포인트로 넣어 나타냈습니다. 류의 '정'과 켄의 '동'이 대비되어 보이도록 류와 같은 석화버들을 사용했습니다. 옆에 놓인 류와 함께 감상해 주세요.

エドモンド本田
에드몬드 혼다
힘차게, 일본답게

에드몬드 혼다를 모티프로, 스모 선수의 힘과 기술의 박력, 그리고 일본다움을 꽃으로 표현했습니다. 묵직한 존재감은 황금 편백과 핀쿠션으로, 스모판(도효)과 샅바는 손수 만든 흰 금줄로 나타냈습니다. 목화를 포인트로 더했습니다. 도효에 선 선수의 기백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マノン
마농 (스트리트 파이터 6)
우아함 속에 감춘 강인함

마농은 유도가이자 발레 댄서입니다. '우아함 속에 감춘 강인함'을 주제로, 버드나무 가지의 유연한 곡선으로 우아하게 춤추는 듯한 아름다운 움직임을, 인상적인 분홍빛 머리를 떠올리게 하는 백합으로 기품과 내면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본회의 사범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담함과 섬세함을 소중히 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세계유산과 가시하라

飛鳥・藤原の宮都

아스카·후지와라의 궁도

성실하게 살다

후지와라궁 대극전의 특징인 붉은 기둥과 흰 벽을 떠올리며, 붉은 말채나무와 가을빛 수국, 흰 국화를 꽂았습니다. 대극전의 웅장함과 함께 '맑음'과 '품격'도 느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 개인의 주제는 '성실함'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 사는 것.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과, 성실함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万葉集

만요슈 (수반)

옛 시절을 그리며

만요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입니다. 아득한 그 시대를 떠올리며 자연 속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표현했습니다. 화려함이나 호화로움이 아니라, 들에 피는 작은 꽃들처럼 수수하고 다정한 모습. 그 덧없음 속에서도 늠름한 강인함이 느껴집니다. 옛 일본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따뜻하고 평온한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평온한 시간을 보내 주세요.

万葉集

만요슈 (항아리)

자연에 깃든 생명의 힘

만요슈에 노래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깃든 생명의 힘을 표현했습니다. 곧게 뻗은 붉은 말채나무 가지와 선명한 색채로 자연의 힘참과 생명의 약동을, 실국화와 패랭이꽃의 부드러운 자태로 대지의 풍요로움과 생명의 빛을 나타냈습니다. 모양도 색도 다른 것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에서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さららちゃん・こだいちゃん

사라라짱과 고다이짱

자유롭게, 귀엽게

사라라짱과 고다이짱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가시하라시의 관광 홍보 캐릭터입니다. 사라라짱은 머리카락의 보라색을, 고다이짱은 옷의 초록색을 주된 색으로 삼아 꽃을 골랐고, 여러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뉴질랜드삼으로 경쾌함을 더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처음으로 이케바나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저희의 설레는 마음과, 두 캐릭터가 나란히 있어 생겨나는 포근한 안도감을 느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가시하라시 ©CAPCOM

大和三山

야마토 삼산

세 산의 풍경을 담다

여성의 산으로 여겨지는 우네비산은 늠름한 꽃의 자태로, 세 산 가운데 가장 높고 날씬하게 꽂았습니다. 남성의 산으로 여겨지는 가구산과 미미나시산은 파랑과 빨강의 대조적인 색으로 나타냈습니다. 세 산이 이루는 모양과 높이의 차이를 생각하며 야마토 삼산의 풍경을 이케바나에 담았습니다. 꽃 너머로, 세 산이 지켜보는 야마토의 풍경을 그려 보세요.